

고작 5명 선발...광주 초등학교사 '임용 절벽'

교육부, 학생수 감소·임용 적체 이유 첫 한자릿수 모집

광주 교대 졸업생 매년 300명 넘는데...시험생들 반발

올해 광주지역 공립 초등학교사 선발예정 인원이 처음으로 한자릿수로 떨어지면서 임용시험 준비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3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공립 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사전 예고에서 초등학교사는 단 5명에 그쳤다.

이는 교육부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광주지역 초등학교 교사 정원을 4831명에서 4807명으로 24명 줄인 데 따른 것이다.

광주지역 공립 초등학교사 채용 인원이 한 자릿수로 떨어진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특히 현재 광주 초등학교사 임용 대기자는 76명에 달하고 있어 2016년 이후 합격자들은 단 한 명도 임용되지 못하고 있다.

광주교육대에서 매년 300명이 넘는 인원이 졸업하고 있으나 현재 추세대로라면 공립 초등학교사 임용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가 될 전망이다.

이 같은 '임용 인원 절벽' 현상은 갈수록 심화할 것으로 보여 현재 대학입시에서 상위권을 유지하는 교육대학교의 선호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도시인 광주와 달리 섬과 벽지가 많은 전남의 초등학교원 모집 인원은 2014년 483명, 2015년 650명, 2016년 552명, 2017년 342명, 2018년 414명 등 500명 안팎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교육부의 초등학교원 임용 인원 산정 기준은 전년

도 학생 수여서 불합리한 면이 있다"며 "광주는 2018년이면 1300명 정도 학생 수가 늘어나는 데도 오히려 교사 정원이 줄어 이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이 3일 2018학년도 공립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사전예고를 시교육청 누리집에 공고했다.

임용시험 사전예고에 따르면 중등임용 인원은 교과 40명, 특수(중등) 3명, 보건 4명, 영양 1명, 사서 2명, 전문상담 15명으로 총 65명이다.

초등임용 인원은 유치원 25명, 초등 5명, 특수(유치원·초등) 5명 등 모두 35명이다. 최종 선발 인원은 초등 9월 14일, 중등 10월 13일에 각각 확정 공고된다.



“모기 물렸거라~” 올해 첫 일본뇌염 매개모기(작은 빨간집모기)가 광주에서 발견됨에 따라 3일 광주시 북구 보건소 방역반원들이 북구 효곡 어린이공원 일대에서 긴급 방역 활동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배운주 광주 경찰청장 취임 인터뷰

“모든 현장 인권 최우선...시민안전 최선”

“진정으로, 민주·인권의 도시 광주시민을 위한 경찰이 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배운주(54·경찰대 2기) 신임 광주경찰청장은 3일 열린 취임식에서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문화의 도시, 그리고 역사의 굴곡마다 불의에 항거해 온 민주와 정의의 도시, 광주에서 근무하게 돼 영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배 신임 청장은 “경찰의 존재 이유는 국민이 있기 때문이며, 광주시민의 안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겠다”면서 “경찰 내부의 기준이 아닌 수요자인 시민의 관점에서 시민안전에 꼭 필요한 정책을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정의는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경찰이 지켜내야 될 경찰의 본분이자 책임”이라며 “정치적인 고려나 사사로움에 의해 본연의 업무가 흔들리지 않도록 명확히 진실을 규명하고, 공정한 법집행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주 출신인 배 청장은 정광고등학교와 경찰대 행정학과·연세대학교 대학원을 나왔으며, 보성경찰서장과 광주 광산경찰서장·서울청 형사과장·전북청 차장·경찰수사연수원장·경찰청 보안국장 등을 지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8개大 총학 “대학들 입학금 폐지 동참을”

대학생들이 학교별 100만 원 안팎인 입학금 징수를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고려대를 비롯한 8개 대학 총학생회와 전한련(한·대·대학원학생회연합), 참여연대 등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입학금을 폐지한 군산대(국립)의 결정(광주일보 8월 1일자 7면)에 다른 대학들도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이 공개한 대학별 입학금 정보를 보면 동국대가 102만4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외대(99만8000원), 고려대(99만7000원), 홍익대(99만6000원), 인하대(99만2000원), 세종대(99만원) 순이었다.

이들은 “입학금 개편과 학생증 발급 등 입학 사무에 필요한 예산이 학교별로 큰 차이가 있는데도 입학금이 대학별로 0원

(한국외대)에서 100만원으로 천차만별”이라며 “입학금 산정근거와 집행내용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대학은 입학금을 안 내면 입학학을 불허하는 방식으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면서 “사실상 대학 입학에 대한 상납금처럼 운용됐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대학생 8000명이 입학금 폐지 서명을 하고 1만여명이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을 낸 사실도 언급했다.

이들은 “대학 입학금 단계적 폐지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한 정부가 폐지 목표연도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국회도 현재 발의된 입학금 폐지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산=박근석기자 nogusu@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44 해질 16:53
해질 19:33 달질 02:31



지역별 날씨 (°C)	
광주	구름 많음 25/35
목포	구름 많음 26/34
여수	구름 많음 26/32
나주	구름 많음 24/35
완도	구름 많음 25/33
구례	구름 많음 23/35
강진	구름 많음 24/33
해남	구름 많음 25/34
장성	구름 많음 23/34

바다 날씨	
서해 앞바다	북동~동 0.5~1.0
남해 앞바다	동~남동 1.0~2.5
남해 서부 앞바다(동)	북동~동 1.0~2.0
남해 서부 앞바다(서)	북동~동 2.0~3.0

시간별 날씨	
간조	05:39 ~ 11:32
만조	17:23 ~ 19:45

주간 날씨	
5(토)	27/35
6(일)	26/35
7(월)	26/33
8(화)	25/32
9(수)	25/32
10(목)	25/32
11(금)	25/32

태풍 노루 북상...7일 광주·전남 많은 비

올해 장마는 지속되는 무더위 속에 국지적으로 비가 쏟아지는 등 짧고 굵은 비가 내리는 특성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광주지방기상청이 발표한 '2017 장마특성'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장마는 지난 6월24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광주·전남지역은 지난 6월 29일에 시작돼 지난 29일에 종료됐다. 장마기간은 31일로 평년(32일)보다 하루가 짧았다.

장마기간인 31일간 내린 비의 양은 185.5mm로 평년 376.3mm보다 절반 이상 덜 내렸다.

한편, 태풍 노루는 3일 오후 3시 일본 오키나와 동쪽 65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155km의 속도로 서북서 방향으로 진행 중이다. 중심기압 950hPa로 규모는 소형이지만 강도는 강한 태풍이다.

빠르면 5일부터 전남 해상에서는 물결이 높아지는 등 노루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7일에는 광주·전남지역에 노루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강한 돌풍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수시 입학원서 미리 쓰세요”

대교협 공통원서 작성 서비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다음 달 11~15일 진행되는 2018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앞두고 공통원서 작성 사전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수험생은 원서접수를 대행하는 전학 어플라이 또는 유웨이어플라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통원서접수 시스템 통합지원으로 가입한 뒤 원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면 된다.

한 번 작성한 공통원서와 공통자기소개서는 4년제 대학 191곳, 전문대 137곳

등이 333개 대학에 지원할 때 여러 차례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육군사관학교와 경찰대학, 한국방송통신대 등 대학에서 개별 원서를 접수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대교협 관계자는 “마감이 임박해서 다급하게 원서를 쓰다 낭패를 볼 수 있다”며 “통합지원 가입과 공통원서 작성을 미리 마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대교협은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서 2018학년도 수시모집 성적산출과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대학별 주요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윤영기자 penfoot@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방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